₩r은 캐럿이 그 줄 맨 앞으로 갑니다. (Carriage return) ₩n은 캐럿이 다음 줄로 갑니다. (Line feed)

혹, 예전에 리눅스에서 Ipr로 텍스트 출력해보신 일이 있으시다면, 그당시는 Ipr의 필터링이 text를 제대로 출력하지 못하는 현상을 아실겁니다.

유닉스의 텍스트에는 ₩n밖에 없고, 프린터는 ₩n을 ₩r₩n으로 인식하지 못해서, 프린터로 출력되는 텍스트 출력물의 각 줄은 계단처럼 어긋나게 나오는 것 말입니다.

다들 아시겠지<mark>한, ₩r₩n</mark>은 <u>도스(윈도우즈)</u>/ ₩n은 <u>유닉스, ₩r은 Mac</u>에서 <u>CR+LF 구실</u>을 합니다.

현재는 NewLine(₩n)으로 두개의 역활을 다 하지만 운영체제에 따라 틀릴수가 있으므로 운영체제간 통신(네트워크나 다른 이기종간에 통신)을 할때는 호환성을 위해 둘다 적어주 시는 것이 좋습니다. 캐리지 리턴의 영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Carrage: 운반, 또는 수송이라는 뜻

Return: 되돌아가다.

위 영상을 글자를 칠때마다 활자가 나와서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는데요, 이때 글자는 타자기의 중앙에 정확히 찍히고, 종이가 정해진 간격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

이때 종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Carriage입니다.



한줄을 다 치게 되면, 종이를 한 줄 간격만큼 위로 올려주고, 글자를 치기 위해 종이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야합니다.

종이를 한 줄 간격만큼 위로 올려주는 행위을 LF(Line Feed)라고 하고,

종이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주는 행위를 CR(Carriage Return)이라고 합니다.